

일본 근대교과서의 문법적 특징 연구

(The Study on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Pre-Modern Japanese Textbooks)

윤재숙*

Key Words Modern Japanese, standardization of Japanese grammar, Pre-modern Japanese, Japanese textbooks, Japanese language education

1. 서론

본 연구는 1903년부터 1949년까지 일본에서 사용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문법면의 특징을 연구한 것이다. 국정 제1기(1903년)부터 국정 제6기(1949년)까지의 국정교과서는 국어교육의 기본교재로서 현대 언어생활의 기초로서 그 용어가 발전되어 국민적인 현대어의 성립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정리되지 않은 문법이 국정교과서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어떻게 교육되며, 현대 일본어의 문법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고찰해 봄으로서 문법의 변천 과정의 일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교과서는 문부성편찬 교과서를 국정이전 교과서¹⁾와 국정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²⁾

*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연구조교수

1) 古田東朔(1978) 『小学読本便覧』 第一・二・三・六卷, 武蔵野書院

연구 방법은 국정이전 교과서의 문법이 구어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편찬으로 어떻게 정리되어가는가를 검토하고 나아가 일본 근대교과서의 문법교육이 궁극적으로 일본 현대어 기본문법에 미친 영향이라는 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것은 당시의 메이지(明治)정부의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변화와, 학교교육을 통한 보급으로 표준문법으로, 교과서의 문법으로 통일·정리되는 것을 살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다음 2절에서는 표준적 구어법의 확립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며, 3절에서는 근대교과서의 문법적특징을 국정 이전 과 국정기로 나누어 동사와 조동사의 경우를 분석한다. 4절에서는 일본 근대어 의 표준화 과정에서 보이는 국정교과서의 역할을 분석하기로 한다.

2. 표준적 구어법(口語法)의 확립 배경

본절에서는 일본 근대교과서의 문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그 구어법과의 연관성을 개관하기로 한다. 메이지(明治) 30년대에는 표준어에 대한 요망에 따라 구어(口語)의 어법 연구가 번성하였고, 그 결과 口語文典이 나오게 되었다.

즉 당시에는 「我邦未だ標準とすべき口語なし、現存すんものは皆方言なり」(일본에서는 아직 표준으로 삼을 구어(口語)가 없다. 현존하는 것은 모두 방언이다.) 라고 하여, 민간에서의 움직임과 병행하

-
- 2) ① 第1期 1903년부터 사용 『尋常小学讀本』1-8권 ② 第2期 1910년부터 사용 『尋常小学讀本』1-12권 ③ 第3期 1919년부터 사용 『尋常小学国語讀本』1-12권 ④ 第4期 1934년부터 사용 『小学国語讀本』1-12권 ⑤ 第5期 1942년부터 사용 『ヨミカタ』1-2권 『よみかた』3-4권 『初等科国語』1-8권 ⑥ 第6期 1948년부터 사용 『こくご』1-2학년 1-4권 『国語』 3학년 (上・下) 1-2권 4-6학년(各上・中・下) 1-9권

여 문부성에 의한 방언의 전국조사가 실시되었고, 또한 과거의 방대한 문헌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1906년 『口語法』 『口語法別記』로 이루어졌다. 개인의 문전에서 보이던 문제점도 『口語法』에서는 정리되고 현대 구어문법의 기초로 확립되어 가고 있다. 동사, 형용사, 조동사의 활용은 『口語法』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정리되어 현대 구어활용에 가깝게 되었으며 조사의 종류도 거의 정리되었다. 그러므로 1900년에는 각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던 방언이 단기간에 표준어의 원형(原型)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이루게 된 것은 메이지(明治)30년대 구어연구의 성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표준어는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이 정리되면서 국어조사위원을 비롯한 당시의 연구자들이 보다 이상적인 口語를 위하여 一語 一語에 대한 역사적 사용 상태, 지방에 따른 보급도를 고려하면서 인위적으로 확립해 왔다고 볼 수 있다.

3. 근대 교과서의 문법적 특징

여기에서는 일본 근대어의 표준화 과정 중 동사, 조동사의 활용과 정리라는 관점에서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 근대어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정1기에서 국정2기로 전환과정에서 보이는 구어법의 정리과정에서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근대어적인 어법을 국정 이전과 국정기 교과서의 예문을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3.1. 동사

『口語法』에서는 동사의 활용을 五段活用, 上・下一段活用, カ・サ

行変格活用 의 5종류를 국정1기 국정2기에서는 채용하고 있지만 국정1기 문자에서는 현대의 구어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活用과 動詞의 用法이 보인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ある」「をる」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口語法別記』에서는 「ある」「をる」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文語のラ行変格活用の「あり」「をり」の終止形を、口語でわ、全国、残らず、「ある」「居る」と云って居る。そこで、未来の形の「あろう」「居ろう」を加へて、五段活用とした。(22項) (문어(文語)의 라행 변격활용인 「あり」「をり」의 종지형을 구어(口語)에서는 전국 모두 「ある」「居る」라 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형인 「あろう」「居ろう」를 첨가하여 5단 활용이라 한다)

이와 같은 「をる」에 대한 국정 이전 교과서 중 1887년 문부성편집국 『심상소학독본(尋常小学読本)』의 「をる」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むかふ に 人 が をる から、犬に おはせませう。(심상1, 2과)³⁾

국정 이전의 교과서의 예에서 보이는 「をる」는 국정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로 수록되어 있다.

○ひよこが、おやどりに、このことを話しますと、おやどりは「それでは、もう、かうしては、をられん」。(국정1기 5권 p.17)

○もし、きみがをらなんたら、ぼくは、雷にうたれて、死んでしまふのだった。(국정1기 5권 p.49)

3) 본논문 예문의 출처는 (심상소학독본1권 제1과)의 경우 (심상1.1과)로 표기하기로 한다.

- タエタガ、北条氏が、ヒキツヅイテ、コノ鎌倉ニ、ヲッタ。(국정1기 6권 p.19)
- ソシテ、ソノ工場ノエントツカラハ、イツモ、石炭ノケムリガ出テヲル。(국정1기 6권 p.37)
- みなさんの、ふだん、着てをる着物や羽織は、たいてい、この木綿織で、こしらへたものでございます。(국정1기 6권 p.5)
- それですから、どきょーをすゑてさへをれば、よいのです。(국정1기 7권 p.68)
- かうなると、天皇をおきのどくに思ひたてまつるものどもが、だまってはをらない。(국정1기 8권 p.44)

이처럼 국정1기에서는 현재와 다른 용법이 보이며 그 중에서 「ある」「をる」의 용법이 많고, 현재와 비교하면 현재는 사람에게는 「いる」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정1기에서는 「ある」를 꽤 사용하고 있다. 「をる」도 「をりました」 외에 예시한 것처럼 미연형에서 가정형에 이르기까지 각 활용형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메이지(明治) 30년대에는 국정1기에서 예시되는 바와 같은 용법이 표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정2기가 되면서 다음과 같은 예가 두세 개 있을 정도이며 국정1기와 같은 용법은 사라지고 있다.

- この中にはべんけいも居つた。(국정2기 5권 p.76)
- 其の時分までよそへ奉公に行つて居つた若いむすこが...(국정2기 8권 p.34)

또한 「をる」도 「をります」로는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又ある朝早く信長がかりに出ようとして、「誰も居らぬか。」とよびま

- すと、「藤吉郎秀吉こゝにひかへて居ります。」と答へました。(국정2기 6권 p.46)
- そう手入をして、來年はたくさんならせて、たくさん差上げたいと思つて居ります。(국정2기 7권 p.67)
- かけよつて見て、宗任が「矢はあたつて居りませぬのに、狐は死んで居ります。」と言ふと、義家が「びつくりしてたふれたのだ。(국정3기 5권 p.80)
- 「小判が百五十兩はいつて居ります。(국정3기 7권 p.67)
- 今、戰國の世の中に、四方の敵は、皆こちらのすきをねらつて居ります。(국정4기 7권 p.77)
- 藤吉郎は、「それは私にお尋ねなくとも、そこに槍の名人上島が居ります。(국정4기 7권 p.83)
- これから後、萬壽はうばと心を合はせ、折々らう屋をたづねては、母をなぐさめて居りました。(국정4기 8권 p.45)

위의 예에서 보이는 「をる」는 「ゐる」를 대신하고 있다. 「ある」의 경우 국정이전 교과서에서 다음과 같은 예가 보인다.

- 世の中に、盲の人の、あるぞとは、童等も能く知りつらむ。(심상3, 10과)

또한, 국정1기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ある」의 형을 사용하고 있다.

- 昼ハ、キンジョノ村カラ、カヒモノニ、クル人が、タクサン、アル。
(국정1기 5권 p.64)
- 小太郎の村に、ある、ものしりの老人がある。(국정1기 8권 p.34)

그러나 국정2기가 되면 「ある」는 「あります」의 형(形)으로 통일

되고 있다.

- ウチニハネエサンが一人、ニイサンが三人、オトウトイモウトが一人ツツアリマス。(국정2기 3권 p.10)
- 入口の左手には、小切やえりや帶あげなどがたくさん下げてあつて、それを見てゐる人も大ぜいあります。(국정3기 5권 p.23)
- よく、「わかつてゐるから、話さなくてもいいよ。」といふ人がありますが。(국정5기 9권 p.41)
- おじいさんもあります。(국정6기 2권 p.55)

(3)음편형

음편형의 경우 국정이전 교과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あに さん、こんど は、ばうし の 中 へ 受けませう」と いうて、三朗 は、其 ばうし を たかく 上げました。(심상1, 18과)
- ますぐ に 立て よ、 正しく 向けよ、左 を 見る な よ、 右 をも 見る な よ」と うたうて ゐます。(심상1, 7과)
- そして ふたり が たべやう と 思うて 居る と、桃 は、二つ に われて、中 から、かはゆらしい をとこの 子 が うまれました。(심상1, 26과)
- 博物館に 行きて、六 尺 ばかり ある かに を 見ました。(심상1, 23과)
- 父 は、二人 の 話 を 聞きて、「イヤ、海 には、 まだ 大なる もの が ある ぞ」 と、 鯨 の 話 を はじめたり。(심상2, 23과)
- お竹 は、 急ぎて 人形 は、水 の 中 へ 落ちたり。(심상2, 7과)
- のそば に、 きんと が、まさかり を 持ちて、 くま に のりて ゐます。(심상1, 4과)

- それ 故 に、 かに は、 喜びて ながめ居たり。(심상2, 5과)
- 保己一 は、 常 に 好みて、人 に 本 を 読ませ、 又 かう
しやく を させて...(심상3, 11과)
- ふたり は、おどろいて、上 を 見たれば、をとこの 子 が 木
に のぼりて みました。(심상1, 3과)
- 其 長き 二 本 の 端 に、 目 ありて、 短き 二 本 の
下 に、口 あり。(심상2, 8과)
- 或る 日、 まへ の 猿 来りて、「あなた は、 なぜ あの 柿
を 取らない か」と たづねたり。(심상2, 5과)

이와 같이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음편형은 국정1기에서 다음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리되고 있다.

- ひと は、これ を みて、みんな、「きれいだ。きれい だ。」と
いって、 ほめました。(국정1기 3권 p.39)
- いま、みんなが、おもしろさうに、しょーかをうたってゐます。(국정1
기 5권 p.4)
- わたくしも行って見たいと思ってをりま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국
정1기 5권 p.27)
- 洋吉は、これを聞いて、「それでは、いよいよ、あしたの六時ごろに、
お歸りになりますね。(국정1기 5권 p.60)
- ゆふはんは、うちのものが、みんな、そろって、たべます。(국정1기 5
권 p.2)
- それですから、おちよ の 村 の 人 が、よろこんで、ほーねんま
つり を してゐる の です。(국정1기 4권 p.22)
- 手、足には、ゆび が、五本づつ、あって 足も、手 の よーに、
もの を にぎる こと が できます。(국정1기 4권 p.67)
- 太郎と次郎とは、このこみちをとほって、のぼっていきます。」(국정1
기 5권 p.60)
- まもなく、人がきて、「麥が、よく、みのった。(국정1기 5권 p.15)

○さる は、ていねいに、おじぎ を して、さるまはし の せなかに のって、いきました。(국정1기 4권 p.70)

위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정1기의 경우 음편형은 오늘날과 같은 형으로 통일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국정2기에서 다음과 같은 예가 아직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다.

○君 が よ は ちよ に やちよ に、さざれ石 の いはほ と なりて、こけ の むす まで。(국정2기 4권 p.9)

○タクマシイ大キナカリ犬が四五匹デオツカケテ来マス。(국정2기 5권 p.73)

○中佐ハ目ヲ見張りテ、軍刀ヲ杖ニ起上ラウトスル。(국정2기 8권 p.88)

○噴出する時は湯氣立ちのぼりて、鳴動の音すさまじ。(국정2기 10권 p.73)

위의 예처럼 문제가 있는 것이 2예 정도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국정1기의 용법이나 활용이 국정2기를 기점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정3기 이후부터는 전부 다음 예와 같이 정리되고 있다.

○まだ誰一人城に登つて居りません。(국정3기 7권 p.101)

○東の空に朝日がのぼつた。(국정4기 7권 p.86)

○この 川を ずっと のぼって 行くと、山と 山が 近よって、せまい 谷に なる。(국정5기 3권 p.47)

○たろうと おとうさんが、山へ のぼって きます。(국정6기 2권 p.39)

또한 명령형의 경우 국정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なされ」로 쓰이던 것이 국정1기에서는 「なさい」로 통일되고 있다.

○アレ、ごらんなされ、下 の えだ には、小さい の が るます。

(심상1, 2과)

○はゝ さま、此 本 の 系 を ごらんなされ。(심상1, 4과)

○きて 来て ごらんなされ。(심상1, 11과)

○一つ 下され、 お供 いたませう。(심상1, 27과)

○ごらんなさい。(국정1기 4권 p.23)

○これ は なん です か、あててごらんなさい。(국정1기 4권 p.31)

3.2. 조동사

조동사의 경우에 구어법의 방침이 국정교과서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せられる

『口語法別記』에서는 「せられる」의 구어형은 「せられる・しられる・さるゝ・される」의 4개의 형태가 사용되지만 지방에 따라 사용법이 다양하므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因て、今わ、「せられる」「しられる」「される」の三つにきめた。(209項)

『口語法』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みはりをしられる・せられる(受け身)競争しられる・せられる(可能)

이와 같은 『口語法』의 방침은 국정1기에 채용되고 있다.

○もし、村のためにならない人が選挙せられるよ一なことにでもなると、
村中の人がめいわくをします。(국정1기 8권 p.75)

그러나 국정2기가 되면 「せられる」로 사용되는 경우와

- マツチハ今ヨリ凡ソ百年前、外国ニテ發明セラレタルモノナリ。(국정2기 8권 p.40)
- 蒸氣機關は二百年程前に發明せられたが、初の中はたゞ水をすひ上げる為に用ひる位であつた。(국정2기 9권 p.30)
- かく保護せられたる森林を保安林といふ。(국정2기 10권 p.11)
- 就学兒童ノ数が年々増加シ、義務教育年限モ六年ニ延長セラレタノデ、(국정2기 12권 p.34)

「される」 형이 함께 쓰이고 있다.

- 其の時花の中の花粉は是等の虫に着いて、一つの花から他の花に伝達される。(국정2기 12권 p.20)
- 陣地ハフタ、ビ敵ニ取返サレルノデアラウ...(국정2기 8권 p.89)
- ボートは錨に附けた長いつなに引かれて、或は右に或は左に引廻される。(국정2기 10권 p.65)
- 然るに炭酸瓦斯が絶えず供給されるのは、他にも種々の原因もあるが、動物の呼吸作用も与つて大いに力があるのである。(국정2기 12권 p.22)
- 是は水中にとけてゐる酸素が吸尽されるからである。(국정2기 12권 p.22)

국정2기 이후 국정3기에서 국정6기까지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レマン將軍も、火藥の爆發によりて起れるガスの爲に窒息し居たるを、ドイツ兵に發見せられて...(국정3기 9권 p.36)
- 鳩を通信に使つたのは、餘程古い時代からの事で、殊に一時は非常に盛に行はれたが、無線電信などが發明せられて以来...(국정3기 10권 p.54)
- もちろん其の間、飛行機は日々に改良せられ飛行技術もまた非常な進歩を遂げたのですが...(국정4기 9권 p.17)

- 此の版本は今も萬福寺に保存せられ...(국정4기 11권 p.178)
- 十六日、勝商は再び山上にのろしをあげ、次いで城に入らんとするに、不幸にして敵兵に発見せられ、勝頼の前に引出さる。(국정4기 12권 p.75)
- この兩日の戦に、敵艦の大部分は、わが艦隊のためにあるひは撃沈せられ...(국정5기 11권 p.56)

이와 같은 「せられる」의 형은 국정6기가 되면서 점차로 모습이 사라지고 「される」로 정리되고 있다.

- 傳説を廣く全国で調べてみると、よくにたようなのが、あちらこちらで発見される。(국정6기 15권 p.56)
- 「雪」の映画も、けっしてわるいものとは思わないが、いますこしふかく考えれば、さらにおもしろい場面が発見されるように思われる。(국정6기 14권 p.86)

(2) なんだ

『口語法別記』에서는 「讀まなんだ」「讀まなんだろう」「来なんだら」 등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며, 「是れわ、西国でばかり用いられる」(이것은 관서지방(서(西)일본)에서는 상당히 쓰인다)(243項)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표준어로서의 인정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ぬ」の打消を過去の意味にいうときわ、「讀まなんだ」などのようになる(103項)(「ぬ」의 부정을 과거 의미로 말할 경우에는 「讀まなんだ」 등과 같이 된다.)

위와 같은 모습은 국정1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남아있다.

- しかし、いつまで、いひあっても、ただ、さわがしいばかりで、なかなか、まけがちがつかなんだ。(국정1기 6권 p.59)
- サテ、草ハ、ダンダン、ノボッテ行ッタガ、ソレハ、ソレハ、寒クテ、サキノ見エンホド、雪ガアルヨーニナッタノデ、ドノ草モチョージョーマデハ、ノボルコトガデキナンダ。(국정1기 6권 p.72)
- もし、きみがをらなんたら、ぼくは、雷にうたれて、死んでしまふのだった。(국정1기 5권 p.49)

그러나 국정2기 취의서에서는 「なんだ」의 모습은 없어지고 「なかった」가 표준어로서 정리되고 있다.

打消ノ過去ニハ多クナカッタヲ用ヒタルモ亦同ジ(15項)(부정과거에는 「多クナカッタ」를 사용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정2기 이후 정리되어 국정6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 その時 あね の おはる は、「三郎 さんは まだ それ を 知らなかつた の ですか。(국정2기 4권 p.31.)
- 音次郎は友吉のかたに手をかけて、「あゝあぶなかつた。(국정2기 5권 p.48)
- 一日もけつせきもせず、ちこくもしなかつた子供もございました。(국정2기 5권 p.71)
- これまで貧しい暮しをしてゐるのに、こんな大金を持つてゐるなら、なぜあると一言いはなかつた。(국정2기 5권 p.41)
- 「それまではまだかんがへなかつた。(국정3기 5권 p.46)
- 引けなかつたら、命 が ない ぞ。」と いひました。(국정4기 4권 p.120)
- ほんたうに、むりな事を言つてすまなかつたね。」とおつしやいました。(국정4기 5권 p.128)
- 三ほでの命「山へ行つても、小鳥一羽取れなかつた。(국정5기 5권

p.129)

○ほをりの命「ちっとも、つれなかったんです。(국정5기 3권 p.130)

○雲さえ でて いなかったら、まいあさ あえますよ。(국정6기 3권 p.78)

○男の子は、げたの はなおが 切れて あるけなかったのです。(국정6기 4권 p.32)

이상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정1기에는 다소 근대어적인 표현인 「なんだ」가 보이거나 국정2기부터는 「なかった」로 정리 되어 근대어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고 오늘날과 같은 어법으로 통일 정리되어 표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ん

打消의 조동사 「ん」과 「ない」에 대하여 살펴보면, 『口語法別記』에서는 「因て、二つながら、通用させる事とした(따라서 두 가지이나 통용시키기로 한다)」(250項)라고 서술하며 아직까지는 정리되고 있지 않았다. 이것을 국정1기에서는 도쿄(東京) 어를 표준어로 인정하면서 취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第6冊(第三学年後半期用)ニ至ル迄ハ総テンヲ用ヒ第七冊(第四学年前半期用)ヨリ始メテント共にないヲモ用ヒタリ(60項)(제6권(제3학년 후반기용)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ん」을 사용하고 제7권(제4학년 전반기용)부터 시작하여 「ん」과 함께 「ない」도 사용한다.)

국정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ぬ」로 쓰이던 것이 국정1기에서는 「ん」을 사용하고 있다.

○あの 人 は、大き な 人 では、ありませぬ か。(심상1, 1과)

- こゝ の うを は、 よく なれて ゐて、船 を こいで も、
又 手 を 水 に 入れて も、にげませぬ。(심상1, 15과)
- 手紙 には、つまらん こと も 書く もの ではありません。(국
정1기 4권 p.58)
- ひとは、じぶんでするきにならんと、どのよーなしごとでもできるもので
はありません。(국정1기 5권 p.18)

「ならない」「しらない」의 경우는 「ならん」「しらん」를 사용하며,
이와 같은 어법은 국정 1기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다.

- 又 短針 と 長針 とが、同じ ところ に くる ならん。(심상
2, 10과)
- 日 の 出づる を 見る は、いか に うれしき こと なら
ん。(심상2, 24과)
- いざ 吾等 は、力三 に 代りて 考え見ん。(심상2, 14과)
- 時 は、皆 兵士 と なりて、今 の 兵士 に 代り、勇ましく
わが 国 を 守らん。(심상2, 20과)
- もう、からねばならん。(국정1기 5권 p.15)
- 友吉は「このあひだ、先生が『雷のなるときには、どんなことがあつて
も、高い木の下などに、いってはならん」。(국정1기 5권 p.46)
- けれども、そんな こと を 書いてあげたら、にいさん は 『つまら
ん ことを 書いてよこした もの だ。(국정1기 5권 p.57)
- 君は、まだ、そだつといふことを知らんのか。(국정1기 7권 p.39)
- あるのかも知らんが、土にもはいらんし、上にも、のびん。(국정1기 7
권 p.41)
- されど、諸子は、日本が、大いなる清国と戦ひて、勝ちたることある
を知らん。(국정1기 8권 p.87)

즉 이와 같은 어법은 국정2기가 되면서 취의서에서 「東京語ヲ標準
トシテ、最初ハ多ク「ナイ」ヲ用ヒ、後「ン」ヲ加ヘタル處アリ(15項)

(도쿄(東京)어를 표준으로 삼아 처음에는 대부분 「ナイ」를 사용하다가, 후에 「ン」를 첨가하는 곳이 있다)고 하여 「ん」보다는 주로 「ない」를 취하고 있다.

- けれども、船は、なかなか、沈まない。(국정1기 7권 p.68)
- もし、村のためにならない人が選舉せられるよ一なことにでもなると、村中の人めいわくをします。(국정1기 8권 p.785)
- ふだんは人も通らない道だから、どこをどう行つてよいか分らない。(국정2기 5권 p.76)
- まさはふしぎさうに、「どうしても光らないのでせう。(국정2기 3권 p.36)
- 父は「ここがあかるいから、みえないのです。(국정2기 3권 p.36)

그러나 「ん」의 사용은 아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5·6학년교재에 한정되고 있다.

- 師の賜物の智を徳を、かちにしをりに世の海をわたりて行かん。(국정2기 12권 p.120)

즉 부정 조동사 「ん」과 「な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打消ノ助動詞ニモン=ないノ二様アリ此中んハないヲ多ク用フル地方ニモ存スレトモないハ地方ニヨリテハ全ク用ヒラレサルモノナルカ故ニ第六冊(第三学年後半期用)ニ至ル迄ハ總テンヲ用ヒ第七冊(第四学年前年期月)ヨリ始メテント共ニないヲモ用ヒタリ(第二項・三)(부정의 조동사에도 「ん=ない」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ん」은 「ない」를 많이 사용하는 지방에도 존재하지만, 「ない」는 지방에 따라서는 전혀 상용되지 않는 곳이 있기에 제6권(제3학년 후반기용)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ん」을 사용하고, 제7권(제4학년 전반기용)부터 처음으로 「ん」과 함께 「ない」도 사용한다.)

이와 같이 굳이 통일을 서두르지 않았던 면이 보인다.

- もう、からねばならん。(국정1기 5권 p.15)
- 友吉は「このあひだ、先生が『雷のなるときには、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高い木の下などに、いってはならん」。(국정1기 5권 p.46)
- それだから、川上の林はだいじにして、むやみにきってはならん。(국정1기 5권 p.69)
- 鐵のよーな、貨幣をこしらへるにも、つかはれず、じきに、さびて、赤くなるものとは、くらべものにはならん。(국정1기 6권 p.62)
- あるのかも知らんが、土にもはいらんし、上にも、のびん。(국정1기 7권 p.41)
- ソレハ、アマリ、人ノキツカン苔デアッタ。(국정1기 6권 p.73)
- もし、村のためにならない人が選舉せられるよーなことにでもなると、村中の人めいわくをします。(국정1기 8권 p.75)

그러므로 메이지(明治) 30년대의 표준어의 의식이 반영되고 있는 국정1기에 사용되었던 동사「をる」「ある」, 조동사「せられる」「なんだ」「ん」이 문제가 되는 용법 등은 표준어 및 언문일치체의 확정 상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강한 어법으로서 근대어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국정1기에서는「ン」이 주(主)가 되고,「ナイ」는 종(從)의 관계였지만 국정2기에서는「ナイ」로 통일되어「ン」은「マセン」의 형태만 사용되었다. 과거형도「ナカッタ」로 통일되어「ナンド」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현재와 같은 용법으로 정리 통일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국정교과서의 역할

이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정교과서는 당시의 지역에 따라 통일되지 않은 어법을 국가의 표준화 정책에 의해 정리되고 표준화되는 것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자료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표준어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표준어 문법을 확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성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어 연구 중에서도 『口語法』이 표준어의 금자탑으로서 오랫동안 중요시 되었다. 특히 『口語法』에서 확정하려고 했던 語法은 국정교과서의 구어문 중에서 구체화되었고 교육기관을 통하여 표준어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보급해 가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국정교과서는 1903년 편찬으로 현대 구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기 교과서가 편찬되고 1909년 제2기 국정 국어교과서가 개편되면서 현대 구어문법은 거의 성립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되었다. 예를 들면 『口語法』에서 표준어로서 허용된 語法 「(知ら)ん」「(でき)なんだ」「(聞き)ますれば」「かんしんして(をる)」 등이 국정1기 교과서에서 자주 쓰이지만 국정2기가 되면서 이와 같은 용법이 완전히 정리되어 현대 구어문법과 거의 통일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국정2기 교과서는 현대에 보아도 거의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문법이 정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⁴⁾ 현대 구어문법의 성립과정에서 표준어 확정을 위하여 메이지(明治)30년대의 한창이었던 구어법 연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표준어 확정을 단기간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정교과서를 통한 전

4) 上田万年은 1916년출판의 『国語学十講』에 「現在 に於て吾々の手に残されているのは、標準語完成の事業」이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표준어를 완성해가기 위해서는 구어에 관한 조사,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 학교교육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일본 국정교과서의 문법면의 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연구자료는 1904년부터 1949년 사이에 일본에서 사용된 소학교 국어교과서 총71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연구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표준적 구어법의 확립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둘째, 근대교과서의 문법적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셋째, 일본 근대어의 표준화 과정에서 보이는 국정교과서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국정기 교과서의 문법면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정1기의 경우 동사와 조동사의 경우 아직까지 근대어적인 어법 사용의 예가 보이고 있었다. 국정2기부터는 국정1기에서 보이던 근대어적인 어법은 보이지 않으며 현대 일본어의 구어어법과 거의 통일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현대 일본어의 구어문법을 국정2기를 기점으로 통일되고 정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 구어법의 완성은 국정교과서의 편찬를 통하여 전 국민의 학교교육으로 이어지고 표준어의 보급 및 완성을 이루는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국정독본의 문법면을 표준어 구어법의 성립과 그 구어법의 보급이라는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당시 아직까지는 정리되지 않은 일본 근대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표준적인 구어법을 확립하였고 이를 보급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국정교과서를 통한 교육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윤재숙(2004) 「『國定讀本』의 漢語研究-明治漢語의一般化의 視点を 중심으로-」 『日本學報』第60輯, 韓國日本學會
- _____ (2006) 「『國定讀本』이 현대 일본어에 미친영향」 『일어일문학연구』 第56輯, 韓國日語日文學會
- 이한섭(2004) 『일어학개설』, 한신문화사
- 전형식(1999) 「混種語の品詞についての史的考察」 『日本語學研究』 第1輯, 韓國日本語學會
- 海後宗臣編(1964)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第4-9卷(國語(一)-(六)) 講談社.
- 唐沢富太郎(1956) 『教科書の歴史』 創文社
- 国立國語研究所編(1997) 『国定讀本用語總覽』, 國立國語研究所國語事典編集資料1-12 秀英出版
- 飛田良文(1992) 『東京語成立史の研究』, 東京堂出版
- 藤原造史(1992) 『国定讀本の語彙と性格』 日本語学VOL.1.2月號. 明治書院
- 古田東朔(1978) 『小学讀本便覽』 第一・二・三・六卷, 武蔵野書院
- 森岡健二(1969) 『近代語の成立-明治期語彙編』, 明治書院
- _____ 編(1982) 『講座日本語学4 語彙史』, 明治書院
- _____ (1991a), 『改訂近代語の成立-文体編-』, 明治書院.
- 山本正秀(1965), 『近代文體發生の史的研究』, 岩波書店.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Japanese textbooks during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Modern Japanese. The material examined in this paper are pre-modern Japanese textbooks which are subdivided into two: ones before and after government intervention. First, the Japanese textbooks before government intervention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analyze how the Japanese grammar was standardized and popularized, this paper first checks the relationship between textbooks befor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grammar based on colloquial speech, which was considered as the standard grammar by the government at the time. The comparison between textbooks befor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grammar based on the colloquial speech led to the advent of Japanese textbooks made under the supervision of Japanese government.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textbooks after government intervention. The textbooks belonging to the first period show that pre-modern (non-standardized) expressions were used with modern ones. It has been clearly observed that from the books belonging to the second period, the grammar was standardized. This paper advances the claim that the grammar education of the Japanese textbooks after government intervention has a big impact on the formation of modern Japanese given the fact that Japanese textbooks made under the supervision of Japanese government was effectively used in standardizing and popularizing the Japanese grammar, which is surely believed to be a crucial foundation for the formation of modern standardized Japanese grammar.

이름 : 윤재숙(Jae-sook Yoon)

소속 :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연구조교수

주소 :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전화 : 02-3290-1648

메일 : yoon2335@korea.ac.kr

논문투고일 : 2007년 1월 22일

심사완료일 : 2007년 2월 27일

게재확정일 : 2007년 3월 10일